

#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3차 세션

저자는 마침내 경쟁 교사들이 제기해 온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와 선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들의 입장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론자들의 등장은 예견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이미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말씀과 주 구주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사도들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

첫째, 이것을 아는 바와 같이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다가 사도들이 그의 회중에게 전해준 전통으로 낭송했던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불경건한 정욕을 좇을 것이라고 저자는, 마치 베드로의 입술에 직접 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이 특별한 경고의 중요한 출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의 특별한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권능으로 다시 오셔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초기 교회의 목시적 소망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회의적인 기독교 교사들이 신의 응징을 두려워하는 것에 반대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당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신들이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에피쿠로스에게 설득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신이 악인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 지연과 미루기가 신의 섭리에 반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느낌은 섭리에 대한 믿음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회의론자들은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아무런 징조도 없이 지나간 이후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공허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중에게 기억하라고 일깨워 주거나 촉구하는 주제는 3:1-4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가 1:12-15절에서 앞서 등장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한은 청중에게 이 서한에서 듣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음에 이르렀을 때 받아들였던 사도적 메시지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당시 마치 믿음의 신비 전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회의론자들은 혁신가들이며, 청중들이 신적 계시로 받은 것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전의 헌신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함을 회복해야 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경쟁 교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저자는 그들이 공유하는 성경적 유산을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핵심 신념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계속해서 탐구합니다. 심판과 재림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하늘과 땅이 옛날에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세상은 물에 잠기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되어 심판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창세기 1장에 반영된 우주론을 떠올립니다. 이 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어 하늘의 둥근 천장 위에 물과 둥근 천장 아래에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의 물을 일정한 공간에 모아 마른 땅, 즉 땅을 창조할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1세기 무렵, 이러한 우주관, 특히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이 일종의 물질적인 둥근 천장이라는 생각은 오래전에 버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러한 세부 사항을 상기시키는 것은 전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나온 것,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던 것은 신성한 역사에 따르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물로 범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자의 요점은 창조 자체가 동일한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66장 14-16절과 말라기 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에 의한 우주의 미래의 해체와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준비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은 우주 자체보다 더 신뢰할 만하고 견고할 것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회의론자들은 이 점을 고의로 간과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사건들은 이러한 기대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역사적 선례를 제공합니다. 1세기 무렵,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두 번째로, 그리고 불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 요세푸스는 아담이 세상이 한때는 불의 힘으로, 또 다른 때에는 엄청난 양의 물로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전승을 인용합니다.

우주적 대화재라는 개념은 스토아 학파에서도 받아들여졌지만,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대화재가 끝없는 창조와 파괴의 순환의 일부였습니다. 저자는 유대인 학파에서 주장하는 보다 선형적인 관점을 고수합니다. 다가올 대화재 후에는 새롭게 창조된 무한한 영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사도적 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중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인간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가 포함됩니다. 사실, 저자는 거의 2천 년 후에도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글을 쓰면서 이를 거의 예상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험에서 하루는 천 년 같고 천 년은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약속을 더디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리라. 첫 번째 고려 사항은 불멸하고 영원하며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시간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경험과 유한하고 시간에 얽매인 존재로서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권위 있는 성경, 즉 시편 90편 4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들린다는 사실은 더욱 설득력을 더합니다. 거기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를 광범위하게 의역한 유빌리서의 유대인 저자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2세기 초로 추정되는데, 신의 형벌이 지연된다는 또 다른 인식을 다루기 위해 이 동일한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선악과를 먹은 날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비판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년서의 저자는 아담이 930세에 죽은 것과 하나님의 시간적 경험에서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따라서 희년서에서 우리는 아담이 죽었고, 그에게 1,000년 중 70년이 부족했다고 읽습니다.

천 년은 하늘의 증거에서 하루와 같으니,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하여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날의 햇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햇수 안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딘 것은 상대적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또한 유익합니다.

심판의 날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의로움이 우리 삶에 뿌리내릴 여지가 아직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오지 않는 매일은 하나님의 게으름이나 헌신의 부족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철학적 성향의 그리스 수필가 플루타르코스는 인간이 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통적 믿음에 대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비판에 답하고자 하면서 이와 유사한 고찰을 제시했습니다.

인간과 신이 시간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에 주목한 후, 플루타르코스는 신이 미래를 위해 형벌을 유보하고 자비와 관용으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린다고 썼습니다. 이는 회개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형벌의 지연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시대 전환기에 쓰인 헬레니즘 유대교 저작물인 솔로몬의 지혜서의 저자 또한 히브리인들보다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몰아내신 것이 신의 자비로운 인내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무서운 짐승이나 엄한 말씀으로 그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못하시지만, 조금씩 심판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권능이 크시지만, 온유함과 큰 관용으로 심판하시고, 언제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는 성경 기록이 훨씬 더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땅에 들짐승이 들끓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주민들을 조금씩 쫓아내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심판 날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며, 오늘날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맞출 기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로 인도함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많음을 멸시하느냐?”

주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와 악에 무관심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는 당시 초기 기독교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마치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을 습격하여 불리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알았다면, 깨어서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비유를 사용하여 훈계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줄을 너희가 잘 아느니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쳐와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날이 도둑같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이야기에 삽입된 경고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낼까 두려워하여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자는 3장 10절에서 생생한 언어로, 바로 그 날, 이 현존하고 영원해 보이는 물질적 우주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 어떻게 갑작스럽게 사라질 것인지를 묘사합니다.

마지막 절은 본문상 몇 가지 난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주로 서기관들이 저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명확한 변화를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해석은 “땅과 그 안에서 행해진 일들이 발견되거나 발견될 것이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해석이 가장 좋고 명확한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사라져서 발견되지 않는 사본들이 있으며, “불타버린” 동사를 대신하여 “불타버린” 동사를 사용하거나, 두 동사를 결합한 사본들은 파괴된 것으로 발견됩니다.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신약성서의 중요한 초기 전집 두 권, 사실상 서기 4세기의 거의 전체 성경에 해당하는 사본입니다.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저자가 여기서 환기하고자 하는 언어적 이미지는 지상의 모든 주민과 그들이 행한 행위, 즉 하늘과 그 사이에 있는 하늘의 간섭이나 여과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감찰 앞에 선 모습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늘은

일반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영광의 견딜 수 없는 광채 사이에 일종의 장막을 제공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우리가 존경했거나 경멸했던 자의 영광과 권능을 정확하고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자에게는 확신과 행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지 정신적 동의만을 요구하는 단순한 신학적 교리를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삶의 도전과 기회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인 나침반을 재확인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개입의 지평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현재 삶의 행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파괴될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 없어지고 체질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평화 가운데서 흠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도록 힘쓰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으로 여기십시오. 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쓴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에 관해 그의 모든 편지에서 말했지만, 그 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무식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자들이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리 아는 자이니,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여러분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분에게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표준적인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저자는 미래, 즉 종말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나타날 징조, 그리고 마지막 몇 년 동안 펼쳐질 종말 이야기 등에 대한 추측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전적으로 그 지평을 바라보는 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라는 신조적 확신은 현재 순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초점 렌즈 역할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찾으셨던 거룩함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건함, 즉 경건함인데, 이는 그리스, 로마, 또는 유대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칭송받는 미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주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종과 섬김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운명인 현재의 창조물과 영원할 새 창조물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가 현재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는 의가 머무는 그 영역에서 안식처를 찾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저자가 서신의 첫 문단에 제시한 지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되돌아보고, 이 새로운 질서, 아니, 현재의 질서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내다볼 때, 우리가 무엇에 가장

열중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도덕적 탁월함, 지식, 절제, 인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자는 로마서 외에도 바울의 다른 여러 서신들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독자들에게 평안 가운데 그분 안에서 흠 없고 책망할 것 없이 드러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흠 없는 삶을 살 것을 회심자들이 계속 추구해야 할 주요 목표로 자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빌립보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날에 진실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에 너희 마음을 거룩함으로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자와 바울이 공유하는 이러한 강조점을 고려할 때, 저자가 다른 사람들이 바울 서신의 의미를 왜곡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안녕을 해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어떻게 믿었는지 추론해 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바울이 직접 반박했던 바울의 메시지 왜곡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대로, 혹은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고 어떤 이들이 우리가 선포한다고 주장하는 대로,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한 일을 해야 합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토라 아래 있는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죄를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정의롭고 선한 일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을 위한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열심히 증명하는 듯합니다.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대로,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죄 안에 머물러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이 바울의 선포에 대한 응답이라면, 그것은 제삼자가 그 복음을 잘못 해석하거나 제삼자가 내린 잘못된 추론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울과 야고보 역시 믿음이 사랑과 의로운 행위로 드러나야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점에 대해 완전히 동의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소아시아의 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스러운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손에게 임하느니라.

저자가 반대하는 회의론자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죄악과 자기만족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려는, 공허한 말들을 늘어놓는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저자가 바울 서신을 나머지 성경이나 성경 전체와 함께 언급한 것을 크게 비판하며, 이는 베드로후서가 바울 서신들이 수집되어 히브리어 성경과

함께 신성한 경전으로 격상된 후인 2세기에 이미 기록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저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부여주심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새로운 신앙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저는 회중들이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남긴 유산인 목회 서신들을 나누고, 수집하고, 공경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이라는 용어가 정경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심사 과정을 거친 본문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서신처럼, 그리고 사도 사후에는 더욱 그랬을 형성적으로 기초가 된 문서들을 지칭하는 느슨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두 가지 훈계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다가올 개입과 그에 따른 위협에 대해 미리 경고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특정한 종류의 회의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영원히 전해진 신앙의 다른 측면들에 도전하는 자칭 교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이 그들에게 주입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위치를 벗어나 이러한 오류와 혁신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서두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저자는 그들에게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은혜와 지식은 아마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이 이루어지는 수단, 도구, 혹은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성장이며, 변화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이를 인도하고 형성합니다. 결국, 이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추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끝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에 대한 질문은 미결 상태로 남겨두었지만, 서신 자체의 데이터를 고려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제시됩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신뢰하는 동료에게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옹호하는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표현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는 회의론자들의 반론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확신을 흔들고 기독교 메시지를 재창조하여 복음 메시지가 신자들을 이끌고자 하는 변화의 궤도에서 신자들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베드로에게서 비롯되었지만, 표현 방식은 익명의 동료에게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회의론자들을 상대로 복음과 그 복음이 지지하는 방향을 옹호하고자 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되살려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용은 본질적으로 사도적입니다. 특히 신적 심판에 대한 기대로 촉진된 인격과 윤리의 변화에 대한 강조는 더 큰 사도적 증거와 잘 부합합니다. 유다서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2장의 사도성을 확증합니다.

변형과 그 의미에 대한 회상, 혁신적인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마지막 개입에 대한 선포 역시 사도적 전통에 분명히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아마도 베드로 자신에게도 그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복음의 일부 요소들을 덜 합리적이고 계몽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삭제하고자 했던 회의론자들의 반대에 맞서 사도 복음을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옹호합니다.

사도들의 진정한 제자들과 그들의 선포를 옹호하는 자들은 교회 역사의 모든 세대에서 이 임무를 스스로 떠맡아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이후로 사도적 복음을 책임감 있고 성공적으로 옹호하는 모든 활동에 통합된 여러 요소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앙에 회의적인 자들이 제기하는 이의를 듣고, 성경 전통과 그 전통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는 개정된 복음을 따르는 것과 사도 복음의 틀을 고수하는 것 모두의 윤리적 결과를 제시하며, 두 번째 길이 왜 더 고상하고 유익한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초에 혁신가적 복음을 위한 여지를 만든 근본적인 우려에 답하는 방식으로 사도 복음을 새롭게 표현합니다. 이 경우, 널리 인정받는 미덕을 산출하는 합리적인 철학으로서 그 자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음의 공식화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는 변증론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구속과 최후의 구원 사이의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나침반을 확고히 고정시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시어 얻은 우리 죄의 용서입니다. 둘째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현재의 하늘과 땅이 해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시선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고정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매일매일 이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과거의 죄에서 깨끗해진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 놓으신 새 삶 안에서, 덕을 키우는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합니다. 이는 저자가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앞에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흠에 피를 뿌린 열매를 맺으며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미래가 오고, 하나님께서 의가 거할 새 창조를 준비하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 놓으신 새 삶 안에서, 그 미래에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덕을 키우는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구원의 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바울, 야고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궁극적인 안전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대피로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과 같다고 일깨워 줍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따를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